

이인직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관 연구

신미삼* · 노상래**

- I. 서론
- II. 착종(錯綜)의 봉건을 넘어서기 위한 「과부의 꿈」
- III. 국민화 되는 신체로서의 여성과 그 속성
- IV. 거세된 여성의 주체성과 관념적 '남녀 동등'
- V. 결론

【요약】

이인직은 근대 계몽기, 존망의 기로에 선 나라를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국가체계로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 「혈의 누」를 창작했다. 그 속에서 그는 다양한 계몽의 지표를 통해 백성을 개화시키려 했다. 특히 이인직은 여성을 국민의 한 분자로서 발견하여 자신의 근대성을 여성성을 통해 구현하려 했다. 이로써 과부를 비판하고, 과부를 넘어 신교육을 수혜한 여학생에게 조선 부인 교육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 편입시켰다. 하지만 이인직은 오직 여학생만을 바람직한 국민성을 띤 여성상으로 호명함으로써,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비국민'으로 규정짓고 차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하였다.

게다가 이인직은 여학생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주체’가 아닌, 오직 남성 지식인에 의해 재현되는 타자로 위치 지었다. 소설 속에 드러난 ‘남녀동등’ 또한 관념적이고 허구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근대적 문체로 근대성을 담지한 「혈의 누」였지만 ‘옥련’이가 구완서를 향해 발화하는 경어법 속에서, 그녀가 아직도 낡은 언어적 위계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가성은 국민국가 건설을 희구함과 동시에 일본에 의한 ‘의타적인—실력양성론’을 펼친 그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극단적 ‘민족’주의와 극단적 ‘근대’주의라는 이분법적 틀 사이에서 분열하고 미끄러져갔던 이인직의 내면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에 대한 봉합으로 그는 결국 본격적인 친일의 길을 걷는다.

I. 서 론

한국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기획된 국민국가화는 언제부터였는가. 그 시기는 주지하다시피 개화기, 구체적으로는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이다. 특히 조선에서 근대화의 기류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은 것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다툰 1894년 청일전쟁 이후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제압함으로써 마침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중국의 예속을 벗어나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되었다. 이후 “국가에 대한 근대적 관념,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새로이 정립되는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다.¹⁾

이로써 지금까지 협소하고 자족적인 공동체 세계에 살던 “민중

1)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색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6, 28~30쪽 참고.

을 국가의 민(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정신세계의 재편성 과정²⁾이 진행된다. 조선의 계몽 지식인들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개인을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국가의 건설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문명한 국가의 건설, 즉 근대국가의 수립을 국민의 역량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³⁾ 여기서 언론 매체들은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상징 기제들과 담론들을 만들어내었다. “국민국가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상상된 공동체였으므로 국민국가는 그것의 상대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제들을 통해 사람들을 국민으로 환원시켜야 했던 것이다.”⁴⁾

하지만 여기서 민족의 범주에 해당하는 주요 구성원들은 오직 남성이었음을 근대 계몽기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잘 보여준다. 당시 부르짖어지던 ‘만민평등’의 논리 또한 ‘만민 = 남성’이었다. 그러므로 계몽의 담론은 “모든 구성원을 국민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특히 중세 체제하에서 타자화되었던 여성, 어린이, 천민, 부랑자 등 주변부 집단 또한 재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열렬히 수행한다.”⁵⁾ 특히 본고에서 문제로 삼을 여성은 남성과 뒤섞여 있되 철저히 배제 당하는 남성 내부의 다른 존재라는 처지에서, 계몽의 대상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 위에 다시 ‘발견’된다.

이와 같은 발견을 이루는 인식의 지평이란 ‘남녀동등론’이었다.

-
- 2) 최현식, 「근대계몽기 서사문학에서 민족국가의 상상력과 매체의 상관성 - 『미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167쪽.
 3)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35쪽 참고.
 4) 윤대석, 「역자 서문」,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5, 26쪽.
 5) 고미숙, 앞의 책, 95쪽 참고.

당시 ‘남녀동등’은 한 국가의 계몽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되었다. 즉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의 동등권이 있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풍속이고, 그 아름다움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조선의 남존여비적 일상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러한 남녀동등론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도 가질 수 있음을 허락한 것이었기에 “남존여비적 일상의 타파를 의미”했고, 당시의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와 가정 안에서 여성이 처한 열악한 지위의 개선을 뜻”했다.⁶⁾

하지만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것은, 모든 구성원을 국민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개화기 계몽 담론 속에서 여성 또한 국민으로 포획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획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소수자 집단이긴 하나 “수적으로 남성과 다르지 않은” 대규모의 소수자 집단이었고, 동시에 “인구 재생산의 직접적 주체”였다.⁷⁾ 즉 조선의 여성들은 그들이 낳고 기를 미래 국민 구성원들의 어머니가 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여성은 계몽의 대상에서 절대 저버릴 수 없는 중요한 주변부 집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남녀동등론이란 결국 국가의 부강과 유용성을 지니기 위하여, 국민국가로 가는 길속에서 발견된 다수의 마이너리티인 여성들을 ‘국민’으로서 위치 짓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확산에 공헌을 한 소설이 이인직의 「혈의 누(血の涙)」이다. 이인직은 신문이라는 대중매체, 특히 그 매체의 주요한 구성물 가운데서도 “근대적 삶에 대한 계몽의 도구이자 그 자체로 오락거리가 된 ‘소설’”을 통하여 근대적 국민국가와 국민의 형성,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여성에 관한 인식틀 및 “그것들의 지

6) 전미경, 앞의 책, 138~139쪽 참고.

7) 고미숙, 앞의 책, 95·106쪽.

속적인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실제적 원리를 제공하는”⁸⁾ 힘을 보여줬다. 「혈의 누」의 주인공은 ‘김옥련’이라는 여성이지만, 사실 『만세보』에 「혈의 누」가 연재되던 1906년의 시점에서 여성이란 민족의 범주에 해당하는 주요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였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학의 머리에 놓인다는 신소설의 효시 「혈의 누」가 주인공을 굳이 여성으로 설정한 점에서 우리는 이인직의 여성관 및 여성을 통한 그의 근대성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인직의 최초의 소설 또한 주인공이 ‘과부’라는 점은 이인직의 여성관을 논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인직의 발견된 여성으로서의 여성관과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근대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한계와 한계에 따른 봉합 원리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보려 한다.¹⁰⁾

8) 최현식, 앞의 글, 164~165쪽.

9) “1907년 대구에서 개최된 국채 보상 운동에서 보여준 여성의 역할이란 것도 사실은 국채 보상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여성을 이 운동에서 제외하는 것에 격분한 여성들이 전국 여성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격문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되어 여성의 역량을 표출할 수 있었다. 격문에는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는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대한매일신보』, 1907. 3. 8)라는 구절이 보인다.(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41쪽과 60쪽의 각주 11번 참고)

10) 본고의 텍스트는 ① 이인직이 『만세보』에 연재한 「혈의 누」 상편(1906. 7. 22~10. 10)과 ② 『제국신문』에 연재(1907. 5. 17~6. 1)되어 총 11회로 완결된 「혈의 누」 하편, 그리고 ③ 『매일신보』에 총 65회에 걸쳐 발표(1913. 2. 5~6. 3)된 그의 마지막 소설 「모란봉」이다. 이후 본문에서 「혈의 누」 상편을 인용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각주를 생략하고, 그 외의 작품의 경우는 각주로 횡수 및 연도를 밝힌다. 그리고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원문으로 하되, 본문에서 설명할 때에는 현대국어로 풀어쓴다.

II. 착종(錯綜)의 봉건을 넘어서기 위한 「과부의 꿈」

다지리 히데유키(田尻浩幸)는 이인직이 『미야꼬 신문(都新聞)』에 발표한 최초의 일본어 소설 「과부의 꿈(寡婦의夢)」을 발굴하여 97년 만에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과부의 꿈」 외에도 그는 『미야꼬 신문』에서 이인직이 한국과 관련하여 쓴 여러 기사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일본 유학 시절의 이인직의 새로운 면모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인직은 1896년 2월 을미사변 아관파천으로 인한 온건 친일 내각의 몰락과 함께 일본에 망명”한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귀국하여 1900년 관비유학을” 떠났다.¹¹⁾ 그가 국비유학생으로 도입하여 공부한 곳은 동경정치학교였으며, 그 시절 견습했던 동경 『미야꼬 신문』사에서 일본 특유의 정치소설을 배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인직은 1901년 11월부터 1903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가량 『미야꼬 신문』사에서 견습 생활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한국과 관련되는 여러 편의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발표하였다. 「과부의 꿈」은 이와 같은 일련의 발표 속에서 1902년 1월 28~29일, 이틀에 걸쳐 발표된 일본어 소설이다.

이 작품은 남편과 사별한 후 13년이나 되는데도 아직도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32, 3세 되는 한 조선인 과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지리 히데유키는 이 작품을 분석하는 글에서 “이인직은 근대화에 따른 풍속 개량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이 작품의 경우 죽은 낭군을 잊지 못하는 애처로운 과부의 묘사에서는 봉건

11) 함태영은 이인직이 1900년에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1900년의 일본행은 이인직의 첫 도일(渡日)이 아니며, 이인직은 1896년 ‘개화운동 관계’로 조중응과 함께 일본에 정치적으로 망명한 망명객이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것은 함태영의 「이인직의 현실 인식과 그 모순 - 관비유학 이전 행적과 『都新聞』 소재 글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7~16쪽 참고.

적 인습에 대한 부정보다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¹²⁾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작품의 표면적 읽기만을 통해서 내려진 오독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은 과부의 집에 들어오는 이웃집 노파의 발화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는 바, ‘과부 개가 금지’라는 조선 시대 봉건적 인습에 대한 이인직의 비판적 개화 의식이 묻어나 있는 소설이다.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연재된 이 작품에서 이웃집 노파의 “정말 마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계시는지. 곤란하군.”(28일), “정말 마님은 언제까지 저렇게 슬퍼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 곤란한 일이군”(29일)이라는 2번의 발화는, 단순히 과부에 대한 이웃집 노파의 동정적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인직의 개화 의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인직의 개화 의식이 일본에 와서 보다 확고해지고 철저해진 것은 자명하다. 이것은 그가 『미야꼬 신문』사에서 견습 생활을 하며 신문에 발표한 최초의 기사인 「입사설(入社說)」(1901. 11. 29)과 두 번째 기사인 「몽중방어(夢中放語)」(1901. 12. 18)에서 잘 드러나 있다.(세 번째 발표한 작품이 「과부의 꿈」이다.) 「입사설」은 “1901년 11월 26일 ‘한국공사관의 추천’¹³⁾으로 『미야꼬 신문』사에서 신문 사업을 견습하게 된 이인직이 3일 후 자신의 신문사 입사 소감을 밝힌 글”이다.¹⁴⁾ 이 글은 “팔베게를 하고서 사십성상(四十星霜) 동안 참으로 잘 잤다. 곁에서 잠꼬대를 하는 자는 우리 이천만 동포다. 바다 건너에 와 보니 종이 한 장이 매일 아침 베개맡에 날

12) 다지리 히데유키, 「<<미야꼬신문>>에 발표된 이인직의 단편소설 <과부의 꿈>과 한국 관련 기사들」, 『문학사상』, 1999. 7, 46쪽.

13) “그 때 그는 한국공사관의 의뢰서를 가져왔었다고 한다.”(다지리 히데유키, 「이인직의 도신문사견습시절 - 「朝鮮文學 寡婦의夢」 등 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어문논집』 32집, 민족어문학회, 1993, 338쪽.)

14) 다지리 히데유키, 「<<미야꼬신문>>에 발표된 이인직의 단편소설 <과부의 꿈>과 한국 관련 기사들」, 51쪽.

아서 떨어진다. 아 — 신기하고 새워서 몽롱한 눈을 비비고 한 번 보니 신문(新聞)이라고 이름 붙여 천하의 별별 소식을 가득 싣고 있다.”라고 시작한다. 이인직은 이 글에서 “미야꼬신문사 여러 군자(君子)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 “우리 이천만 동포들의 배개맡에 이를 힘껏 던져서 이들이 앞으로 잠자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몽중방어」는 이인직이 『미야꼬 신문』사의 ‘편집사무 견습생’이 된 후 “자기의 꿈 이야기를 빗대어 “서생”(유학생)들의 마음가짐을 당시의 시대상황에 연결시켜 술회한 수필”이다.¹⁵⁾ “오늘에 있어서의 세계의 대세(大勢)를 성찰하면, 완전히 대몽(大夢)이 교착(交錯)함과 같다. 우리 한국(韓國)은 아무런 사기(邪氣)도 없는 천진(天真)의 몽(夢)이며, 지나(支那)는 새벽녘의 잔몽(殘夢)이다”라고 시작하는 이 글은, 계속하여 러시아인, 영국인, 독일인, 불란서인의 몽(夢)을 나열하고, 끝으로 일본의 몽(夢)을 언급하고 있다.

이 두 편의 글에서 이인직이 말하고자 하는 공통된 주제는 한마디로 “잠을 깨자”이다. “바다 건너에 와” 본 후 이인직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조선의 풍경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근대인의 시각인 문명의 시선에 나포된 조선이란 균질화라는 근대적 배치 속에 새롭게 재탄생되지 않으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직에게 우리 이천만 동포들은 곁에서 잠꼬대만 하는 우매한 자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몽중방어」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뒤에 발표된 「과부의 꿈」의 ‘과부’란 바로 이인직이 깨우고자 하는 이천만 동포의 표상이다. 즉 ‘봉건적 인습에 대한 부정보다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창작되어진 것이 아니다.

「과부의 꿈」에서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의 과부는 남편이 죽어도 개가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열행(烈行)만도 다

15) 위의 글, 53쪽.

양했다. 게다가 “이 법은 조선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직접적 성 통제의 핵심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정절’은 조선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로까지 변질되고 미화되었다.¹⁶⁾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과부 개가 금지’ 및 이로 인한 열행들이란 사실 만들어진 것이다. 전통이 만들어진 과거이듯이 이것 또한 각 시대와 주체의 현재적 관점에서 선택되고, 해석되고, 구성되어진 가변적인 것이다. 서구를 본받아 문명조선을 이룩하고자 했던 계몽지식인들은 조선의 일상을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부개가금지를 대표적인 야만적 악습으로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1894년 단행된 갑오경장의 14대 개혁안에서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 것이다. 사실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미비한 당시의 상황에서 경제력이 없는 과부의 개가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¹⁷⁾ 이러한 논리는 이인직의 「혈의 누」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풍속 청상과부
朝鮮風俗갓트면靑孀寡婦가, 시집가지아니흐는것을, 가장, 잘흐는일
로알고,
근심중 도덕상 죄 악 풍속 문명
일평싱을愁中으로지너는, 그러한道德上에罪가되는惡호風俗은文明호,
나라
고 과부 천하만국
에는업는故로, 절머서寡婦가되면 시집가는것은天下萬國에, 붓그러운
일이 아니라

(「혈의 누」 25회, 1906. 8. 29.)

16) 전미경, 「과부의 개가, 그 멀고도 험한 길」, 앞의 책, 116~118쪽 참고.

17) 위의 책, 118~119쪽 참고.

그래서 일본에서 옥련이를 맡아 길러준 이노우에(井上) 부인은 그녀의 남편이 죽자 “어진 남편을, 어더 시집을 간다”. 과부재가를 도덕상의 죄로 치부하는 규범이 문명한 나라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악한 풍습’이자 ‘야만’이라는 이인직의 논리는 근대 계몽기 지식인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과부의 꿈」에서의 32, 3세 과부의 수절 행위, 즉 죽은 지 무려 십삼 년이나 지난 서방님을 그리워하여 ‘소복’을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아님에도 병든 사람같이 보이고, “그때부터 웃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늘은 점심도 드시지 않”으며, 불가삼생설(佛家三生說)과 염라설에 빠져, 죽은 남편의 평안한 후생만을 기원하여 “한없는 슬픔, 끝없는 생각”에 빠져있는 조선의 과부들이란 비판의 대상이자 계몽의 대상이었다. 이인직에게 있어서 “혼인을 덩하얏다가, 신랑될 사름이 죽었는디, 그 덩혼흔 식시가 슈절흔는” 경우의 여자는 “밋친년”인 것이다.(「모란봉」 22회, 1913. 3. 12) 그네들은 모두 천진의 꿈에 빠져있는 조선 이천만 동포에 더도 덜도 아니다.

그렇다면 “방금(方今) 서세동점(西勢東漸)하여 아주일폭(亞洲一幅)은 거의 사분오열(四分五裂)에 이르려고”(「몽중방어」) 하는 이 시점에서 “한바탕의 수면”에 빠져 “무슨 꿈을 꾸는지” “정신없이 자고 있”는 ‘과부’에게 “앞으로 잡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인직의 방법론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국민으로 포섭된 과부 및 여성을 구제할 지식을 갖춘 여성, 그중에서도 신학문을 성취한 ‘여학생’ 호명하기로 구체화 된다.

III. 국민화 되는 신체로서의 여성과 그 속성

국민으로 발견된 여성은 역시 전과는 다른 모습, 다시 말해 늘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으로 거듭나야 했다. 여성들에게는 이제 “깁흔 규중(閨中)에 드러안져서, 텃진(天真)으로, 세월을 보던”¹⁸⁾ 안방의 “절문 生寡婦”¹⁹⁾를 넘어 국가를 위한 역할로서 공부가 부여되었다. 이때 교육과 공부는 애국의 동의어였다. “계몽지식인들에게 교육은 구국의 열쇠”였기에 “교육을 향한 열정은 여성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었다.²⁰⁾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은 “녀장군” 더 나아가 “참모총장”²¹⁾의 지위도 누릴 수가 있었다. 이인직은 이러한 논리를 “베풀어 개인 생활의 길을 가르치려는 작은 뜻”을 가지고 신문을 설립한다.²²⁾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연재소설 「혈의 누」이며, 여주인공 ‘옥련’이었다.

청일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일본인 군의(軍醫) 이노우에(井上)에 의해 일본으로 가게 된 옥련이는 그 군의의 처에 의해 길러진다. 옥련은 목욕도 시켜주고, 조선복색을 벗겨 양복도 입혀주며, “말도 가르치고 假名도 잘 가르쳐” 하루바삐 학교에 보내준 군의의 처에 의해 근대 문명인으로 거듭난다. 그리하여 “日本간 지 半年이 못 되어 日本말을 엮지 그러케, 잘 흐든지 井上軍醫의, 집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玉蓮이를 日本아히로 보고 朝鮮아히로는 보지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 여성의 처지와 대비시켜 “朝鮮녀편네는 안방구석에 가두고, 아무것도, 가라치지아니 흐얏”음을 비판하는 이인직의 목소리는 당대 조선 사회를 엄두에 둔 발언이다. “이러튼지, 저러튼지 玉蓮이는 朝鮮녀편네에는 比할 곳 업”으며, 급기야는 “尋常小學校<...>의 卒業式을 當흐야 學校에서 <...> 優等生이” 된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옥련이보다 다섯 살 위인 청년 구완서보다

18) 「모란봉」 32회, 『매일신보』, 1913. 4. 5.

19) 「혈의 누」 17회, 『만세보』, 1906. 8. 16.

20) 전미경, 「남녀동등론의 진의(眞意)」, 앞의 책, 152~155쪽 참고.

21) 「모란봉」 65회, 『매일신보』, 1913. 6. 3.

22) 「한국신문 창설취지서」, 다지리 히데유키, 앞의 글, 69-71쪽 재인용.

도 그녀의 실력은 탁월했다. “계집의직조가, 산아희보다, 나훈” 것이다.

옥련이는 “조선계집아희이느, <...> 동서양으로 단기면서” 신학문을 접한 결과 “조선부인사회에서, 법 밧을 만훈 사름”으로 변모한다.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옥련이는 심지어 존망의 기로에 선 조선을 구제할 “경국경성(傾國傾城)의 녀장군(女將軍)”²³⁾으로 명명된다. 시대를 구할 영웅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개화 지식인들은 당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학교 교육에서 찾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 교육과 공부를 오롯이 성취한 옥련이야말로 ‘국인의 몽매한 지식과 미개함’을 구제하고 인도할 바람직한 여성상이었다.

이렇듯 ‘신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 과거의 여성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남녀동등권에 의하여 여성에게도 주어진 교육 및 공부의 기회는 “개인적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국가적 활동을 위하여 매진하는 여성에게 내려주는 일종의 보상”²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학문’을 성취한 여성은 오직 ‘국민’으로 살아가야 했다. 남녀동등론에 의해 부여된 여성의 자유 및 권리는 ‘국가 분자된 자격’을 위한 활동 안에서만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⁵⁾

이인직은 구완서의 입을 통해 국민의 한 분자인 옥련이가 조선 부인들을 가르치고 문명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부탁한다.

“ <...> 우리들이, 나라의빅성되얏다가工夫도못흐야만 고野蠻을, 면치못흐면사

23) 「모란봉」 19회, 『매일신보』, 1913. 3. 7.

24) 전미경, 「남녀동등론의 진의(眞意)」, 앞의 책, 168~171쪽 참고.

25) 위의 책, 148~149쪽 참고.

라셔쓸새잇느냐, <...> ^{공부}호로뵈비工夫호야, ^{부인교육}우리나라의婦人教育은, 네
가맛
^{문명}트文明길을여러주어라.”

(「혈의 누」 35회, 1906. 9. 16.)

인용문에서 보듯 「혈의 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인직의 여성상이란 국민화 된 정신이 그의 몸을 장악한, ‘국민화된 신체’였다. 그러므로 이인직은 ‘국민화된 신체’로서 임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혼인 당사자들의 섹슈얼리티보다 우위에 두었다. 미국에서 옥련이의 아버지 김관일에 의해 구완서와 혼인 언론을 하게 된 옥련이는 “옥련이가 <...>, 몇히든지 공부를, 더 심씨 호야, 학문이, 유여한 후에, 고국에 도라가서, 결혼호고 옥련이는, 조선부인 교육을 맛트하기를 청호는” 구씨의 소청을 듣자, “조선부인 교육할 마음 이, 간절호야 구씨와 혼인언약을” 맺는다. “옥련이는 공부를 심씨 호야, 귀국호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널려서, 남즈의계 압제를 맞지말고, 남즈와 동등 권리를찾게호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빅싱이 되고, 스회상에, 명예 잇는 사름이 되도록, 교육할 마옵”인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정이며 일종의 질병과 유사한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감정이 대상에 강력하게 고착되면 그 밖의 인간관계와 일상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등한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문화에서 지나친 열정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습의 골칫덩어리”²⁶⁾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계몽기의 ‘국가’는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써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주어진 근대 교육의 효과란 오로지 근대 국

26)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 신소설과 계몽적 논설을 중심으로 -」, 『민족문학사연구』, 2001, 320쪽 참고.

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밑거름으로만 기능할 때, 그리고 민족의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동원될 때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여성교육은 ‘국가주의’를 건설할 유용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영웅에 대한 열망에 의해 ‘소년’·‘학생’들이 청년과 함께 구국의 동량으로 간주되었거니와 ‘어린이’ 또한 당시 계몽담론에서 이와 동일한 기의로서 사용되었기에, 어린이 교육이 강조되면 될수록 여성의 임무는 막중해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성 교육, 조선 부인에 대한 교육의 위상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 부인 교육’을 통해 국민으로 편입된 여성들이란 오직 교육받은 소수의 여성들이란 점이다. 그와 함께 남녀평등의 세상은 오직 교육받은 소수의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명의 세례였다. 아울러 교육 받지 못한 여성은 교육 받은 여성과 차별 되는 이름의 타자들이었다. 게다가 “누는 언제던지工夫호야 學問知識이 너넉흔 후에, 안희도 學問 잇는 사람을 구호야 장가 들깃다”라는 구완서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화꾼은 같은 개화여성에게 장가 들려했기 때문에 신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스스로를 재주 없는 ‘숙맥’으로 규정”하게 되고 공민권 또한 획득할 수 없었다.²⁷⁾

특히 「모란봉」에서, 귀국한 옥련이에게 반한 서일순이 옥련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십만 원까지는 쓰겠다는 말을 엿들은 최씨 집행랑 더부살이 계집(일명 하늘밥도적)의 혼잣말은 교육받은 여성과 교육받지 못한 여성의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서일순의 아내는 못되더라도 첩은 될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식암이 나고, 암상이”나 내뱉는 ‘하늘밥도적’의 혼잣말 속에는 이미 “학문 잇는 녀학싱”과 “이째식지, 언문도 못 썬친” 계집과의 싸움이란 전혀 승산 없는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27) 전미경, 「여성에 대한 여성의 시각」, 앞의 책, 188쪽.

‘하늘밥도적’의 이와 같은 언술은 교육받지 못한 여성이 절대적 다수였던 시대에서, 대다수 무학 여성들의 보편적 정서를 담론화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국민’의 중얼거림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IV. 거세된 여성의 주체성과 관념적 ‘남녀 동등’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통하여 옥련이와 구완서의 “의식은 고양되고 이념은 더욱 공고”²⁸⁾해졌다. 이렇듯 새로운 공간적 경험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을 오로지 공부에만 고정시킨 것은 서양의 근대를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작가의 의지”²⁹⁾적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이인직은 옥련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정형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감각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근대적 징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옥련 자신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하는 점이다. 조선 부인을 가르치고자 욕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 떠오르는데, 사실 옥련 스스로는 민중을 위해 지식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심각하게 제기해본 적이 없다.

「혈의 누」가 “외부적으로 주어진 이념적 속성에 의해 담론화되기도 하고, 내면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욕망에 의해 담론화되기도” 하지만,³⁰⁾ 사실 ‘내면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욕망에 의해 담론화’의 장을 펼 수 있었던 것은 구완서와 김관일이었다. 옥련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여권신장’이었지만 사실 이 분야도 구완서가 옥련에게 ‘혼인 언약’과 더불어 부탁한 “소청”이었을 뿐, 그녀 스스로 자발적인 내적 논리를 갖추어 소망한 것은 아니었다. 「혈의 누」에

28) 김종욱, 「《혈의 누》 혹은 백 년의 한국소설」, 『문학사상』, 2006. 8, 194쪽.

29) 김탁환, 「옥련과 리심 - 근대의 불꽃놀이」, 위의 책, 206쪽.

30) 권영민, 「《혈의 누》 그리고 신소설의 운명」, 『문학사상』, 2006. 8, 190쪽.

서 발견되는 것은 오직 남성의 목소리요, 그와 함께 애국애족을 위한 담론 체계 속에 편입되어가고 있는 여성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주인공에게 부여된 새로운 교육과 개화의 길”이 이인직 자신의 조급한 개화의지로 인한 “하나의 허상”³¹⁾이자 그가 현실에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미래상임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다양한 계몽적 지표들로서 「혈의 누」를 그려내었지만 막상 이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묵”³²⁾했다. 마음이 암울해진 것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으며, 자립심 없이 조력자의 도움으로만 공부한 옥련이를 통해 이인직은 조선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대의 움직임들을 조선 안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옥련이가 담당할 조선 부인에 대한 교육 역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다. 사실 「혈의 누」에서는 옥련이가 일본 오사카의 심상소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며 무엇을 공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미국에서 우등으로 졸업한 고등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은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고전소설 속의 주인공과 같이 오직 관념적 수작으로서만 옥련이의 총명함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따지고 보면 옥련이는 일곱 살에 언문도 모를 때에 모친을 떠나 일본으로 온 계집아이로, 이후 구완서에 의해 한문과 언문은 깨쳤으나, 그녀의 말과 몸가짐이며 사고와 의식 구조는 일본인과 진배없었다. 옥련이는 “어려서 日本에서, 자라는 사름이라, 말을 햏야도 日本말투가” 많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결국 이인직은 여성을 국민의 한 분자로 발견하여 특히 여학생에게 남성의 조수이자 조력자로서 조선 부인 교육이라는 임무를 부여하였지만, 이것은 여성이 주체의 위치에서 욕망되어진 것이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지향해야 할 근대를 상징

31) 위의 글, 187쪽.

32) 김종육, 앞의 글, 202쪽.

해 놓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주체적 근대 여성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여성이 주체로 상정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혈의 누」가 표방한 근대성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면, 구완서에 의해 주장된 ‘남녀동등’의 문체 역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사상을 담는 그릇”³³⁾이라면 구완서와 김옥련이 주고받는 대화의 문체 속에서 ‘남녀 동등’에 관하여 사고한 이인직의 근대성을 암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완서는 옥련에게 우리나라 부인에게 지식을 가르쳐 남자의 압제를 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옥련을 향해 발화되는 언술은 오직 ‘해라체’였다. “具氏는 조선서 즈란 사름이라 朝鮮風俗으로 옥련이가, 아히인 故로, 히라를” 하였지만 “싱각흔 즉, 저도 쏘흔 아히”였다. 그러므로 구완서는 옥련이 또한 ‘해라체’로 말해 줄 것을 부탁하나, 옥련이가 중시 ‘하오체’로 일관하자 그 역시 ‘하오체’로 마주 해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품 끝까지 구완서의 ‘하오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옥련이가 구완서를 향해 발화된 문체의 격식은 언제나 ‘하오체’라는 경어법이었다. “여전히 낡은 말의 힘이 살아”³⁴⁾있다.

주지하다시피 『만세보』에 연재된 「혈의 누」는 국한문 혼용표기에 부속 국문활자로 한자의 음과 뜻을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이중표기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혈의 누」의 부속 국문활자와 일본식 루비 표기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한 결과, 「혈의 누」의 문체는 대체로 ‘일본식(루비) 표기의 모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이인직의 정치적 편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33) 김탁환, 앞의 글, 207쪽.

34) 최태원, 「《혈의 누》, 말을 둘러싼 모험」, 『문학사상』, 2006. 8, 219쪽.

환원되었다. 이후 「혈의 누」의 ‘루비식 표기방식’을 일본문화에 민감했던 개화 인텔리가 봉건 지배계급의 문화에 대항한 하나의 타협적인 문자행위로 규정한 논의도 있고, 최근에는 단순한 일본식 표기의 차용과 모방이 아닌 변용과 굴절의 산물이자 근대소설이라는 낮은 세계와 격투하여 그 나름의 언어를 찾는 과정의 기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³⁵⁾ 이러한 논의는 크게 모방과 전유로 대별되겠거니와 이 둘은 결국 “(신)소설이 국문체를 획득하는 여러 경로 중의 하나”를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를 향한 작가의 욕망이자 신념”³⁶⁾을 입증한다.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언어로 구축되는 법”인 것이다.³⁷⁾

하지만 이인직의 근대적 문체 형성이라는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그 문체로 제시한 근대 문명의 습득이라는 서사와는 달리, 이인직은 옥련이의 말 속에서 분열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혈의 누」에서 남성을 향해 발화하는 여성의 어법이 ‘경어법’이었다는 점이다. 문체란 “단지 내용을 담아내는 수사적 차원에서의 언어 현상”이 아니다. “작가의 세계관 등이 복합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³⁸⁾ 그러므로 ‘남녀 동등’의 이상은 이인직의 관념 속의 지향점이었을 뿐 그의 깊숙한 내면에는 여전히 남녀불평등의 질긴 동아줄이 꼬리를 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옥련이의 ‘말’에서 드러난 썸이며, 이인직의 「혈의 누」에 나타난 여성관이 일관되지 못한 틈새의 분열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플로베르의 말처럼 소설에서 형식과 내용이란 마치 육체와 영혼과도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35) 「혈의 누」의 루비식 표기에 관해서는 위의 글과, 같은 저자의 석사 논문을 참고하였다.(최태원, 「<血의 淚>의 문체와 담론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36) 최태원, 「《혈의 누》, 말을 둘러싼 모험」, 210~211쪽 및 217쪽 참고.

37) 황도경,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6, 68쪽.

38) 위의 책, 51쪽.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의 문제³⁹⁾라면, 이인직은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속에서 분열하고 있었고 이러한 말의 어긋남이 곧 삶의 어긋남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인직이 옥련의 문체를 통해 드러낸 말과 글의 균열은 구완서와 옥련이의 대화를 바라보는 서술자로서의 그의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 구완서와옥련이가, ㄴ이어려서, 외국에간사람들이라, 조선사람이, 이렇케야만되고, 이렇케용넬흔줄을모르고, 구씨던지옥련이던지, 조선에도러오는날은, 조선도유지흔사람이만히잇서서, 학문잇고, 지식잇는사람의말을듯고, 일틀찬성햐구씨도, 목적되로되고, 옥련이도 제목적되로, 조선부인이, 일제히, ㄴ교혹을바다서, 낫낫시ㄴ와긋흔학문잇는사람들이, 만히싱기려니, 싱각<...>햐는거슨, 제ㄴ라형편을모르고, 외국에유학한소년학싱, 예기에서, ㄴ오는마음이라

(「혈의 누」 46회, 1906. 10. 5,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구국의 동량으로 이인직이 표상시킨 청년과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만’되고 ‘용렬’한 제나라 형편을 모른 채 ‘이상주의와 계몽주의적 낙관성’ 속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인직 자신의 내적 분열을 의미한다. 구완서의 학문과 옥련의 조선 부인 교육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조선도 개화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개화 지식인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의식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조선 사람들이 근대적 의식의 각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표상체계에 의한 일상의 재조직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소설을 통해 드러난 이인직의 눈에 비친 19세기의 조선 및 조선인의 이미지란 ‘야만스러움’이었다. 이인직은 ‘야전병원’,

39) 위의 책, 15쪽.

‘군대’, ‘학교’ 등의 근대적 구조물을 소설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영역 속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적 근대의 규율과 습속을 암암리에 조선의 전역에 전파하려 애썼다. 이를 일러 근대적 감각의 미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에 대한 이런 감각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훨씬 구체화된다. “사오층 되는, 낯은 집”을 “구름 속 하늘 맞히” 닿을 듯 짓고, “초인종(招人鍾)”으로 손님과 “쌈이”가 의사를 소통하는 “호텔”의 모습 등에서 미국은 ‘근대 문명의 표준국가’로 제시된다. 하지만 조선과 조선인은 “계씩지긋치 나진 집”에서 “겉 많고”, 근심 많고, 모든 일은 팔자 기박이라는 운명론적 체념으로 돌려 “험흔 일틀, 더 보지말고 오날이라도” 죽기를 소망하는 비근대적 사고, 즉 근대적 주체성이 부재한 의식과 여지없이 파괴되어야 할 낡은 삶이 도처에 잔존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⁴⁰⁾

결국 구완서와 옥련이가 희망하는 조선 개화의 꿈, 조선 부인 사회를 교육시키기 위한 희망이란 조선이 야만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일본에 의한 근대적 제반구조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의타적인-실력양성론’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이것은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 문명의 스펙타클에 매혹됨으로써 그것을 물신화하게 된 이인직의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전근대적인 봉건적 유제가 미만해 있는 조선 사회를 바라보며 이인직은 시대적 한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⁴¹⁾

40) 이인직의 작품 속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조선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와 동일한 시선으로 조선을 타자화하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혈의 누」에서는 옥련 모(母)에 대해 ‘겉 많음’의 이미지를 「한국잡관 속(續)」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게으름’을, 「귀의 성」과 「치약산」 등에서는 ‘잔혹’, ‘참혹’, ‘잔인’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후쿠자와가 조선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에 대해서는 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2002, 88~89쪽을 참고.

41) 다지리 히데유키, 「이인직의 도신문사견습시절 - 「朝鮮文學 寡婦의夢」 등

V. 결 론

지금까지 이인직의 소설 「혈의 누」를 통해 작품에 드러난 이인직의 여성관과 여성을 통한 그의 근대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출발을 이루게 된 계기는 왜 「혈의 누」의 주인공이 ‘여성’이었나 하는 점이었다. 서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민국가 건설 시기에 여성의 처우란 민족으로 편입되지 못한 다수의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직이 여성, 특히 여학생을 호명하여 계몽의 논리를 펼쳤다면, 이인직의 여성관을 통해 그의 근대성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미숙과 전미경의 연구결과는 필자로 하여금 논의의 개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인직의 근대적 여성관이 형성되는 시초는 그의 최초 일본어 소설 「과부의 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전근대 사교체계에 사로잡혀 자신의 일생을 낭비하는 조선의 ‘과부’들을 향하여 그네들이 각성하기를 역설하는 작품이었다. 여기서 ‘과부’로 표상된 존재는 더 나아가 조선의 모든 여성들을 상징한다. 이후 이인직은 「혈의 누」의 옥련이를 통해 더 한층 구체적으로 조선의 여성들을 각성시킨다. 이인직은 ‘남녀 동등’이라는 지표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신식문물과 신학문을 차례로 접한 옥련이를 표 나게 내세워 조선 부인 교육이라는 막중한 임무, 즉 조선 부인들을 국민으로 재조직하는 임무를 맡긴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는 조선 부인 교육을 갈망한 주체가 옥련이가 아닌 남성 계몽 지식인 구완서였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관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남녀

새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331쪽 및 332쪽 각주 42번 참고.

동등'의 문제였다. 특히 후자의 문제에 천착해 보기 위해서 「혈의 누」의 문체에 주목해보았다. 문체란 “단지 내용을 담아내는 수사적 차원에서의 언어 현상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 등이 복합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인직의 ‘남녀 동등’ 의식은 개화꾼 구완서를 통해 언설화된다. 하지만 구완서와 옥련이가 주고받는 말 속에서 이것은 오직 관념적 수작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해라체로 발화되는 구완서의 언설과 하오체로 발화되는 옥련이 언설의 간극 속에서 이인직의 근대적 ‘남녀 동등’ 의식은 낡은 말의 위계에 사로잡혀 오직 관념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인직의 근대성이 오직 이념적 차원에만 머물렀을 뿐 내면화되어 있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인직의 조급한 근대의식과 그의 소설문체 사이의 ‘불일치’는 구완서와 옥련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그가 구국의 동량으로 내세운 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직은 이 둘의 포부가 야만된 조선의 형편을 모르는 유학생의 치기 어린 마음으로 간주하였다. 구완서와 옥련이가 조선으로 돌아와 문명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전반의 근대적 의식 구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인 옥련이가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라는 의식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모 및 확산은 근대적 제반구조가 꺾해질 때만이 비로소 용이하다. 여기서 이인직은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와의 결탁 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럴 경우에만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설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로써 개화를 위해서는 친일로 가야 한다는 이인직의 내적 신념이 형성된다. 이것은 당시 일본에 유행했던 사회진화론의 영향 탓이었다. 여기서 “진보는 결국 세계의 강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인직에게 있어 그 실현은 일본 같은 근대문명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⁴²⁾ 나아가 한일합방은 “동양삼국론”이라는 담론을 수행하기 위한 밑거름이자 자신의 분열성에 대한 봉합의 첫 단추였다.

“동양삼국론”이란 ‘동아시아연대론’의 소설적 형상화로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합방 전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문명개화를 위해 힘썼던 이인직에게 이러한 동아시아 연대론은 ‘구원의 담론’이었다. 동아시아 연대론의 핵심은 일본이 맹주라는 데 있다.⁴³⁾ “일본과 만주를, 한디 합하야” “독일국과 갖치, 연방을 삼아서” “문명한 강국을 맨늘고즈하느” “(비스믹)갓한 마암” 속에 일본이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면, 그리고 그것이 이인직이 모색한 “동양삼국론”의 실체라면, 이인직이 추구한 근대의 끝이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주제어(Key words): 근대계몽기(Modern Enlightenment Era),
 국민국가(Nation-state), 혈의 누(Teardrops of Blood),
 이인직(Lee In-jik), 여학생(Woman student),
 국민화(Making people), 타자화(Making other),
 남녀동등(Equality of the sexes), 내적 분열(Inner split),
 친일(Pro-Japanese)

42) 함태영, 「이인직의 현실 인식과 그 모순 - 관비유학 이전 행적과 『都新聞』 소재 글들을 중심으로 -」, 26쪽.

43) _____, 「『혈의 누』 제2차 개작 연구 - 새 자료 동양서원본 『牧丹峰』을 중심으로」, 224쪽 참고.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권영민 교열·해제, 『이인직 혈의 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이인직, 「혈의 누」, 『만세보』, 1906.
_____, 「모란봉」, 『매일신보』, 1913.

2. 단행본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색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6, 8~125쪽.
고부응 역,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5, 23~94쪽.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41쪽, 60쪽.
양문규, 『한국근대소설사연구』, 국학자료원, 1994, 29~55쪽.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최정순, 『이인직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5.
황도경,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6, 15~68쪽.
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2002, 88~89쪽.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5, 26쪽.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5.

3. 논문

- 고미숙, 「근대 계몽기, 그 이중적 역설의 공간」, 『사회와 철학』 2,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1. 10, 39~41쪽.
고유경, 「근대계몽기 한국의 독일 인식 - 문명 담론과 영웅 담론을 중심으로 -」, 『사림』(성대사림), 수선사학회, 2006.

- 고재석, 「이인직의 죽음, 그 보이지 않는 유산」, 『한국어문학연구』 제 42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2.
- 권영민, 「새롭게 검토해야 할 이인직과 신소설의 의미」, 『문학사상』, 1999. 7.
- _____, 「《혈의 누》 그리고 신소설의 운명」, 『문학사상』, 2006. 8, 180~190쪽.
-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 신소설과 계몽적 논설을 중심으로 -」, 『민족문학사연구』, 2001, 320쪽.
- 김중욱, 「《혈의 누》 혹은 백 년의 한국소설」, 『문학사상』, 2006. 8, 194~202쪽.
- 김탁환, 「옥련과 리심 - 근대의 불꽃놀이」, 『문학사상』, 2006. 8, 206~209쪽.
- 다지리 히데유키(田尻浩幸), 「국초이인직론」, 연세대 석사논문, 1992.
- _____, 「이인직의 都新聞社見習時節 - 「朝鮮文學 寡婦의 夢」 등 새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어문논집』 32집, 민족어문학회, 1993, 317~337쪽.
- _____, 「<<미야꼬신문>>에 발표된 이인직의 단편소설 <과부의 꿈> 과 한국 관련 기사들」, 『문학사상』, 1999. 7, 40~53쪽, 69~71쪽.
- 이상우, 「근대계몽기의 연극개량론과 서사문학에 나타난 국민국가 인식」,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10.
-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윤리의식의 변화와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9.
- 최태원, 「<血의 淚>의 문체와 담론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 _____, 「《혈의 누》, 말을 둘러싼 모험」, 『문학사상』, 2006. 8, 210~219쪽.
- 최현식, 「근대계몽기 서사문학에서 민족국가의 상상력과 매체의 상관성 - 『태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164~167쪽.
- 함태영, 「이인직의 현실 인식과 그 모순 - 관비유학 이전 행적과 『都新聞』 소재 글들을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

설학회, 2006, 7~26쪽.

_____, 『『혈의 루』 제2차 개작 연구-새 자료 동양서원본 『牧丹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57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224쪽.

Study on the womanhood in Lee In-jik's novel

Shin, Mi-Sam-Roh, Sang-Rae

Lee In-jik writes *Teardrops of Blood* to have the nation whose existence is at stake create into a nation with a modern national system in modern Enlightenment Era. His intention is to enlighten people through various indexes of enlightenment. Particularly, by making, or finding, woman as an element of people, he intends to embody his modernity through womanhood. To accomplish his idea, he criticizes a widow, and then, above a widow, endows woman students who have a new modern education with a heavy duty of educating the Chosun woman, and finally he makes them admitted into people of nation. However, as he names only a woman student as a model of womanhood with a desirable nationality, he discriminates an uneducated woman, prescribing them as 'a non-people'.

In addition, Lee In-jik defines a woman student as 'an other being' reproduced by only men intellectuals, not as 'a subjectivity' revealing her own desire for herself. The equality of the sexes in the novel is, we can say, a mere armchair or fabricating concept. Even though *Teardrops of Blood* holds modernity in its modern literary style, at Ok-ryun's speaking to Gu Wan-seo in honorific expressions, we can find out that she remains in an old linguistic hierarchy as yet. Such ambivalence is revealed in his idea of 'dependent - cultivation of power', while he desires for construction of nation-state. It tells that his inner world is spilt up between an extreme nationalism and an extreme modernism. As a result, he takes an pro-Japanese way as a stitching method for the spilt-up.

신미삼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소: (우)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학교) 053-810-2110, 핸드폰 : 011-535-0921

전자우편: sexy1105@hanmail.net

노상래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소: (우)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연구실) 053-810-2117, 핸드폰 : 016-9812-8674, 팩스 : 053-810-4602

전자우편: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07년 4월 27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